베트남에 미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전북대 농축산식품융합학과-농축산용미생물산업지원육성센터, 베트남 국립수의연구소 등과 협양해각서 체결

농축산용미생물산업지원육성센터(센터장 김대혁)와 전북대학교 농축산식품융합학과가 베트남 현지에 미생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베트남 국립수의연구소와 베트남 동물약품 국영기업 벳바코(Vetvaco) 사와 함께 축산용 미생물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 공적 원조를 통해 한국 축산미생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대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의 과학기술 개발 협력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가축 강건성 향상 유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식품으로부터 신규한 고초균을 분리하고 축사의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2018년부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축산업의 4대 과제 중 '축산 분뇨와 악취' 문제를 해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양돈업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돼지의 건강 증진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지원육성센터와 전북대학교 농축산식품융합학과가 최근 베트남 국립수의연구소와 베트남 동물약품 국영기업 벳바코(Vetvaco) 사와 베트남 현지에 미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미생물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 단위 축산용 미생물의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미생물 산업은 기초연구와 산업화 개발 연구의 수준이 낮고, 자체 개발해 산업화 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대혁 센터장은 "2017년 미생물 센터가 개소한 이래 개도국 국책 연구소와 국영 기업과 현지 미생물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센터 설립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향후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축산 미생물 산업 발전과 국내 축산 미생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센터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옌 투안 흥(Nguyen Tuan Hung) 벳바코 대표이사는 "베트남 축산업에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을 주로 사용해 왔지만 대부분 중국이나 유럽에서 미생물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다"며 "축산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 환경 개선과 강건성 증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 기반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미생물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은 규모가 작은 베트남 축산 농가에 적합한 기술"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생물센터와 같은 기관을 베트남에 건립해 에코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적용한다면 베트남 축산업의 발전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7년 연속 선정

전북 유일… 대입 공정성 · 책무성 등서 좋은 평가

전주대학교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진로·진학박람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적성 계발과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프로그램 신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jj.ac.kr)나 유선(063-220-323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치과대학 개교 77주년 77억 모금 선봉

'J-덴탈 펀드' 조성… 졸업 동문 등 기부 유치 힘쓰기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아 77억 원의 발전기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대학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치대는 최근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J-dental Fund'를 조성, 이를 통해 모인 발전기금을 치과대학 지정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J-dental Fund'는 치과대학이 앞장서 기금을 모금해 보자는 추진됐다.

이에 따라 치대는 졸업 동문 및 학문 분야와 관련된 기업체 등의 기부 유치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렇게 모아진 발전기금은 치과대학 지정기금으로 기부, 학생 장학금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 치대는 지난 1월 유미경 학장이 취임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2억여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특히 유 학장이 1,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다.

유미경 학장은 "올해 전북대 개교 77주년을 맞아 대학 차원에서 77억원의 발전기금 모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치과대학이 앞장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교수와 동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치과대학이 글로벌 Top100에 걸맞은 대학으로 발전하고, 학생들 역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11일부터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일반계고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는 진학지도 경험이 없는 교사, 현행 대입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반과, 올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원,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3 진학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심화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기본반 연수 내용은 △신규 진학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매뉴얼 △학생의 진로역량을 고려한 학생부 작성 및 상담 방안 △늘어나는 지역인재전형 관련 이해와 지원 전략 등이다.

이어 심화반 연수 내용은 △의대 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의학계열 지원 전략 △무전공 학과 증설 등 입시의 변화를 고려한 학생부 작성방법 △전형별 지원전략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위직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펼친다. 8일 첫 주자로 나선 서거석 교육감은 '당신의 빛이 될 청탁, 우리의 빛이 될 청렴'이라는 2024년 청렴 표어(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고위직 청렴다짐 릴레이

서거석 교육감, 첫 주자로 나서… 10월까지 6개월간 릴레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위직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정기적인 청렴 다짐 메시지를 전달해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릴레이는 매주 부교육감, 국장, 과장 순으로 전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청렴 메시지를 작성해 인증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 나선 서거석 교육감은 '당신의 빛이 될 청탁, 우리의 빛이 될 청렴'이라는 2024년 청렴 표어(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고위직 청렴 다짐 릴레이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의지를 다지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교육 가족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 마약 예방교육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 전북약사회 등과 함께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마약 접근 실태와 학생 교육 지원 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마약류·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확대 강화 △학교 방문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예방교육 지원 △마약예방 교사 연수회 운영 등 올해 학생 마약예방교육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1,300회의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들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지도로 학생들의 평생건강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북큐레이션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11월까지 지역 초 · 중 · 고 학교도서관 대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교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북큐레이션(Book Curation)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큐레이션은 특정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 이용자에게 제안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다.

이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별 추천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의 독서 관심을 유발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도서를 주제별로 나눠 배경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은 △학교도서관 공간활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료검색형 △학교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체험활동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학교급별, 수준별, 주제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유형으로 진행된다.

김정기 교육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더 다양한 주제의 책을 만나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형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사례를 개발해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독서로' 활성화 사업 추진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독서교육 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운영하는 '독서로'는 옛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다양한 독서활동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한 독서 플랫폼으로, 지난달 23일 개통됐다.

독서로 서비스로 인해 학생은 △독서 현황 확인 △독서월드, 독서뱃지 등 다양한 독서활동 △독서 의욕을 높이는 독서 체험 등이 가능해졌다. 또 교사는 △학생 독서활동 관리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 유도 △전국 단위의 독서 수업자료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추진 사항은 △독서로 사용자 매뉴얼 배포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연수 운영 △독서로 서비스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최근 스타센터 228호에서 선교센터로 활용될 JJ 선교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전주대, JJ 선교센터 기공식

소그룹 단위 지역교회 성도들과 학생 채플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스타센터 228호에서 선교센터로 활용될 JJ 선교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배 총장과 전주대발전목회자협의회 서화평 회장(샘물교회 담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서종표 회장(군산 중부교회 담임), 전북극동방송 이경 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JJ 선교센터는 기독교 사학인 전주대학교에서 현재 소그룹 단위로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학생 채플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JJ 선교센터 기공을 위해 축하와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JJ 선교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신앙과 가치관을 갖추고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제8기 입학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LINC 3.0 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가 공동 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8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온누리홀에서 진행된 입학식에는 중소기업 CEO, 유관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8기 아카데미는 5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진행,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37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